

서문(序文)

망망(茫茫)한 대우주(大宇宙)에 「열」이 있으니 「하늘」이요 『환인(桓因)』이시다. 아드님을 교화주(教化主)로 지상(地上)에 보내시니, 이분이 바로 홍익인간(弘益人間)하야 평화와 자주와 자유로서 인간(人間)을 이롭게 봉사(奉仕)하는 이화세계(理化世界)의 가르침을 베푸신 한민족(韓民族)의 성조 단군(聖祖檀君)이시니, 신라시왕 박씨선원세보(新羅始王朴氏璿源世譜)와 여러 문헌(文獻)을 보면 단군의 후에(後裔) 성모 파사소(聖母波斯蘇)가 동방 나정(東方羅井)에서 단체소생(單體所生)한 거서간(居西干)이 「하늘」의 신탁(神託)을 받고 신라에 시조왕이 되니, 박혁거세왕(朴赫居世王)이요 단기二二七七年 서기BC五七이라 왕명(王名)의 뜻이 광명이화세계(光明理化世界)니, 박(朴)이라 함은 단군이 밝히시여 밝은배달(明地倍達)의 동방어(東方語)이라, 단군의 가르침을 받들어 배달의 평화민족(平和民族)이 고조선(古朝鮮)에 이어서 전통적 신라진국(傳統的新羅建國)을 뜻함이라, 신칙(神勅)의 증표(證票)로서 금척(金尺)과 옥적(玉笛)을 받으니, 세상을 바르게 하라는 계시(啓示)를 받도다. 금척은 바르고 정확하고 불변(不變)하며 영원(永遠)함이요, 우주만상(萬像)의 본체(本體)를 물체(物體)에 준(準)하여 증시(證示)함이니, 사진수(四進數)를 반복(反覆)하야 팔진(八進)하니, 우주의 현상(現像)이라, 옥적과 더불어 음광(音光)을 뜻하야 음파(音波)는 퍼져서 공간(空間)을 이루니 우주공간이요, 빛(光)은 선(線)이니 빠치어 시간(時間)을 뜻함이라, 매월당 김시습(梅月堂金時習)선생이 금척지 주석(金尺註釋)에서 이르되, 금척은 단군의 천부경(天符經)의 법(法)이라 하였고, 고려 명신(名臣) 김 부식(金富軾)선생은 성모파사소기(記)에 논급(論及)하되 단군후에 파사소가 술거동해안(術居東海岸)하되 때마침 중국(中國)땅 은(殷)나라가 주(周)나라에 망(亡)하야 패잔병(敗殘兵)이 서(西)에서 동(東)으로 밀어닥쳐 소요(騷擾)를 일으키니, 단군후에는 동천(東遷)하여 서라벌(徐羅伐)에서 나라의 전통(傳統)을 이어서 세웠다하다. 천명으로 사명(使命)을 받고 신라를 세운후 二十一年에 고구려가 서고, 四十一年후에 백제(百濟)가 서니, 모두 단군후에 한민족(韓民族)이라, 동사찬서(東史纂書)에 박혁거세 九世손이신 휘(諱)는 제상(堤上)이요 호 관설당(觀雪堂)께서는 늘지왕(訥祗王)원년(元年) 단기二七五〇에 고구려에 사신(使臣)으로 가서, 동족끼리 인질(人質)을 서로보내는 교자(交子)의 정치풍토(政治風土)는 있을수 없는 타민족(他民族)의 수치(羞恥)라하고, 교

자풍토(交子風土) 폐지론을 주장하여 관철성사(貫徹成事)한 사실(史實)은 신라전국의 국시현창(國是顯彰)이요, 국가 이전(國家以前)의 민족임을 확인하는 거룩한 행적이라 할 것이다. 이 전통은 이어져 고려국 현종조(顯宗朝)七年 신유(三三五四)에 강감찬(姜邯瓚) 대장군이 신라 구도(舊都) 경주(徐羅伐)에 성모파사소를 모신 성모사(聖母祠)에 국태민안(國泰民安)을 기원하는 탑(塔)을 세우고 지성을 올린 것이다. 이 평화탑의 축원은 북쪽오랑캐 거란족(契丹族)이 세 차례나 고려국을 침범하니, 성모는 단군의 후예를 지켜 국태민안하게 살피소서하는 대의(大意)라 할 것이다. 〈탐원문—平章事姜邯瓚奉爲邦家永泰遐邇常安敬造此塔〉

홍익하는 민족적전국의 전통이념(理念)은 一세왕에 이어서 二세왕남해왕(南解王)에 삼전(三傳)하여 유리왕(儒理王)에 四전하여 파사왕(婆娑王)에 五전하여 지마왕(祇摩王)·六전하여 휘가 이비(伊非)로서 추봉문창왕(追封文昌王)하고 七전에 휘가 대선(大善)이니, 추봉 갈문왕(追封葛文王)이요, 八전에 휘가 천보(天寶)요 호가 물품(勿品)이라, 九전하야 휘 계상은 호는 관설당이요 신라 시조왕을 원조(元祖)로 하고, 원조의 九세손으로 취적영해(就籍寧海)하니, 영해박씨 시조요 영해박씨 보계(譜系)의 시종조(始宗祖)가 되시다.

공은 신라 내물왕(奈勿王)七年 임술(三六二)에 경상남도 양산군 소토리(梁山郡所土里)에서 탄생하다. 배위

는 김교 김각간(金角干)의 따님이시다. 二十四세에 어사대부 간관(御史大夫諫官)에 오르고, 三十四세에 양산주간(州干)이 되다. 그후 잠시 휴퇴강호(休退江湖)하셨다가 다시 나라의 부름을 받아 五十六세^{불지왕 원년} 때 위에서 언

급(言及)한바 고구려에 특사(特使)로 가서 사명을 완수하고 이어서 민족적 자주정신(自主精神)과 국가위신(威信)을 위한 충의심(忠義心)으로 중대하고도 위험한 사명을 띠고 왜국(倭國)에 입국하여 왕의 아우 사흔(斯欣)을 본국으로 귀국케 하는데 성공하셨으나, 공은 왜왕의 국문(鞠問)을 받고 계림(雞林)의 신하임을 크게 외치

니, 이는 제(齊)나라 협곡(夾谷)에서 대사구공부자(大司寇孔夫子)의 호갈(呼喝)을 방불(彷彿)케한 사실(史實)이라. 오호(嗚呼)라 공은 의(義)를 위하여 생(生)을 버리셨다.

때는 눌지왕三年 기미년이니 그 일월같은 충혼의백(忠魂義魄)은 만고에 귀감(龜鑑)이요 위국정신의 대원(大

源)을 이루셨으니 三一定신의 발원(發源)도 여기서 보는도다. 나라에서 충렬공·영해군이라 추봉(追封)하다. 또

한 김씨부인은 두 따님과 더불어 남편의 뒤를따라 기세(棄世)하니, 세상사람들이 호국삼신녀(護國三神女)라 애

통하였고, 나라에서 신모사(神母祠)를 지어서 추모(追慕)하다. 자(子)는 백결선생(百結先生)이니 휘는 문량(文良)이요 호가 백결이라 잠언년(단기二七四七)에 출생하니 五세때 절의수사(節義殉死)한 부모를 여의고 궁중(宮中)에서 잘았으며 부귀권모에 뜻을두지 아니하고 신탁(神託)을 이어가는 예언자(豫言者)와도 같이 금척지를 지어서 후인을 깨우치고, 항상 악기(樂器)를 타서 소리(音)를 공간(空間)에 채우며 안빈락도(安貧樂道)하더라. 인(仁)에 머물고 지혜(智慧)로움을 말하니 오산요수(樂山樂水)의 경지(境地)인가 나라에서 추봉하여 대령군(大寧君)을 나리다. 점필재(佔僊齋) 김 종직(金宗直) 선생이 백결(百結)을 말하되 『인생유명(人生有命)을 자각(自覺)하여 인간을 「하늘」에 사명존재(使命的存在)로 보고 산사람』이라 하였다. 영해박씨의 족보사상이 이러한 민족이 넘과 건국이념(建國理念)과 충의효열(忠義孝烈)을 연원(淵源)하고 연유(緣由)하며 전통과 사명을 이어감을 영박족보의 보시(譜是)로하여 자손에게 이어가는 족보의 특이한 의의(意義)는 만고에 바꿀수없는 신성한 문서라 할것이다. 족보라 함은 서경(書經)에서 인종지칭(人種之稱)이라 함이니 생물학적 개념(概念)이요 화친구족(和親九族)을 이름이니, 사회적 문화적 존재(存在)로서의 민족의식(民族意識)의 소산(所産)이라 할것이다. 민족을 정의(定義)지어서 말하기를, 국가의 명칭은 바뀌어도 공주(共住)의 민족일뿐 아니라 공주성이 상실(喪失)되었다 할지라도 정신적 공주성을 가진다 하겠다.

옛적에 서양(西洋)에 「셈족」이 살았다. 그들을 강대(強大)들에 의하여 두 나라로 갈리었다. 남쪽에는 유태(猶太)국이요 북쪽에는 희랍(希臘)이라, 희랍인은 이론(理論)을 말하고 번영(繁榮)을 말했으나 결국은 너무나 과학적(科學的) 이론이 민족적 분열(分裂)을 일으키더니, 멸족(滅族) 당하여 없어졌고, 유태민족은 나라를 빼앗기고 세계각처로 유랑(流浪)하는 민족이 되었으나, 二천년을 족보로 살아남은 민족이다. 그들은 하늘이 선택(選擇)한 민족임을 자부(自負)한다. 선택된 민족을 해치면 하늘에 심판(審判)이 온다고 확신(確信)한다. 선택된 민족임을 알고 이어가기 위해서 족보를 만들었다. 이 유태의 족보는 히브리 신성문서(神聖文書)의 정신들이 있어서 족보의 보시(譜是)로하고 민족이 화합하고 평화를 사랑하며 여자는 정절(貞節)해야하는 사명을 가진다. 그것은 마치 한민족이 임진왜란(壬辰倭亂)때 여자는 정절을지켜 거룩한 역사와 행적이 족보에 영광으로 기

록되는 것과 흡사하다. 이러한 가치관(價値觀)은 무력적 강대(武力的強大)들이 세계 여러곳의 약소민족을 인종학적으로 변질(變質)시킨 죄악사(罪惡史)에 대한 사명적 역사관(歷史觀)이라 할것이다. 이러한 과거에 역사적 사실들은 정신적 민족주의는 축복을 받고, 정복(征服)적 민족주의는 망한다는 엄연한 사실이다. 여기에 이 숭고(崇高)한 이념과 사명을 새겨 계승승(繼繼承承)하여 내려오는 영해박씨의 족보를 다시 천명(闡明)하여 세감(世鑑)을 번역하게 된것은, 영해박씨의 특유한 족보의 문화사적(文化史的) 우수성(優秀性)을 재확인하는 계기(契機)가 될뿐만아니라, 족보가 지닌 현대적 의의를 정립(定立)하게되는 좋은 계기도 될것임을 확신하는바 그 암시력(暗示力)은 후손의 영원한 축복과 영광되게함이 될것이다. 불문(不文)이 사양치 못하고 여시(如是)로서 (叙)하다.

단기四三二三年 월 일

충열서원장 원임성관관부관장 심계(心溪) 정 주영(鄭周永) 지음

◎간행사(刊行辭)

사람의 성품을 말한 학자(學者)가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에 순자(荀子)는 사람의 성품은 본래 악(惡)하다 하는 『성악설(性惡說)』을 썼는가 하면, 양자(楊子)는 사람의 성품은 선악(善惡)이 혼합되어있다는 『선악혼교설(善惡混交說)』을 역설(力說)하였다. 그러나 우리 선조(先祖)님께서 맹자(孟子)가 주장(主張)한 사람의 성품은 본래 선(善)하다 한 『성선설(性善說)』을 근본적으로 여겨오셨다. 그러므로 제(齊)나라 성간(成閔)은 『저사람도 장부(丈夫)이고 나도 장부인데 내가 어찌 저사람을 두려워하랴』 하였고 또 안연(顔淵)은 『수(舜)은 대체 어떠한 사람이며 나는 또 어떠한 사람인가 노력(努力)만하면 나도 역시 순(舜)처럼 될수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몇몇한 성품을 타고나게 됨으로 옛 현인(賢人)들의 위대(偉大)하신 행적(行蹟)만 보아도 이에 감화(感化)가 되어 성현(聖賢)도·충신(忠臣)도·효자(孝子)도·열녀(烈女)도 될수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조(李朝)때 삼강오륜행실도(三綱五倫行實圖)와 해동삼강록(海東三綱錄)을 편찬(編纂)하여 백성(百姓)들에게 귀감(龜鑑)을 삼게 한것이다.

유구(悠久)한五千年동안 충신·열사가 많았지만 신라(新羅)때 박 관설당(朴觀雪堂)·고려(高麗)때 정 포은(鄭圃隱)·이조(李朝)때 사육신(死六臣)은 그중에서도 가장 위대한 충신으로서 전민족이 숭배하고 있는것이 다. 그러나 현대사람들은 이국명사(異國名士)들의 기록에 급급(汲汲)하면서도 값진 자기조상의 사적에는 도리어 외면(外面) 내지(乃至) 무관심한 경향이 허다(許多)하니 실로 유감스러운 일이다. 외래문화(外來文化)가 물밀듯이 들어와 우리나라의 전통사상(傳統思想)이 뿌리까지 흔들리고 퇴폐풍조(頹廢風潮)가 국내(國內)에 만연(蔓延)되고있는 이때 우리의 전통을 찾는다는것은 오직 근원을 배양(培養)하는 길ियो 추원보본(追遠報本)하는 정신(精神)을 드높이는 길이니 어찌 게을리할수 있겠는가 조상으로부터 이어받은 값진 일들을 더욱 드높여 부조(父祖)의 전통정신을 올바르게 파악(把握)하지 못한다면 자손들의 참다운 발전은 기대(期待)하기 어려울

것이다, 물질만능(物質萬能)의 소유들이 속에서 우리 동방예의지국(東邦禮義之國)의 옛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게 된것은 오직 정신문화(精神文化)의 정화(精華)를 이룩하는 선조(先祖)의 전통사상을 망각(忘却)한데서 기인(起因)된것이다.

전래의 조상행적의 문헌(文獻)이 모두 한자(漢字)로 되어있어 후손들에게 별로 감동(感動)을 주지 못하게 되어 국문번역(國文翻譯)을 절실(切實)히 느끼게 되었다. 이에 동감(同感)한 임원진(任員陣)의 합의(合議)가 이루어져 이 『영해박씨세감』을 간행(刊行)하게 되니 대추회(大宗會)의 편집실무진(編輯實務陣)은 1년여에 걸쳐 후일도없이 주야(晝夜)로 최선(最善)을 다하면서 조상의 위적(偉蹟)을 더욱 현창(顯彰)하기 위하여 여러 고전(古典)을 참고(參考)하여 새로운문헌 五〇여건을 발굴수록(發掘收錄)하게 된 것이다.

이 세감에서 승조정신이 유연(悠然)히 흘러나와 성손(姓孫)들의 정성이 선조님께 받쳐질때 그 여음(餘蔭)으로 우리 후손들의 가정마다 효우돈육(孝友敦睦)하고 진충보국(盡忠報國)하는 기틀이 이루어질것을 믿으며, 이 세감을 간행하는데 그 편집을 감수(監修)하여주신 고문 일홍(一洪)씨 격려(激勵)하여주신 회장 영두(永斗)·부회장 중수(琮銖)·동진(東鎭)·고문 승훈(昇勛)·준호(俊濤)·득순(得鎔)·현정(鉉定)씨 교열(校閱)에 힘써주신 경화(慶華)각순(珪鎔)·종록(鍾祿)제씨 이외 여러임원진·또 음으로 양으로 이 사업을 위해 도와주신 강호첨종(江湖僉宗)께 충심(衷心)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시종조 五十五세손

행점(行漸) 삼가 기록함

寧海朴氏族譜序

自造書契以來有辨姓授氏之注帝鴻氏
後世徒具存此譜之所由起也漢司馬遷
之帝系表唐高士廉之氏族攷皆是譜也
乃無不舉祖先之德行勲業及其後孫繼
述揚顯之美為一代之博史且歎其後人
知始祖能宗而凡曰為祖宗之後在皆可
親睦之也非若版籍軍簿只錄其姓名在

然其我國不大矣乎我東永立國關士大
夫家々有譜牒事先世有名碩而子孫不
能繼而無譜焉事沒世有崛起而祖先無
及獻子不可譜焉人家之有譜不亦美乎
余觀寧海朴氏之為譜焉以為我東諸譜
之冠何哉朴之始祖忠烈公忠義名節卓
越汝家而其子孫在麗朝為三世侍中功
滿一國在壬辰相遇乙未之變而有全家

弄官之遊在遇龍蛇之難不有修 聖廟
 之弊者有奉 聖廟之神版者其餘事高
 蹈林樊泥塗冠冕事躬行孝弟矜式以盡
 事經術文章教導後進世所稱爲人清士
 者此乃后此豈非忠烈公遺教贖罪至屬
 千年而不泯在乎本曰朴氏之世德如此
 而在此 朝屬世不能大振可惜也余以
 爲不然若休朴氏世爲華膺之職以享屬

矣安知其能世守清操苦節以符忠烈公
之德耶且其五百年積累不食安知不流
為幾千萬年登窮之福耶余以是為我東
諸家之譚滿以寧海之朴為冠也

年丁卯至月下泮嘉善大夫前以
章閣副提學東萊鄭萬朝序

寧海朴氏族譜序

自造書契以來有辨姓授氏之法帝鴻氏後世緒具存此譜之所由起也漢司馬遷之帝系表唐高士廉之氏族放皆是譜也而無不舉祖先之德行勲業及其後孫繼述揚顯之美爲一代之惇史且欲其後人知尊祖敬宗而凡同爲祖宗之後者皆可親睦之也非若版籍軍簿只錄其姓名者然其義固不大矣乎我東所重閱人士大夫家家有譜牒或先世有名碩而子孫不能繼則無譜焉或後世有崛起而祖先無文獻則不可譜焉人家之有譜不亦美乎余觀寧海朴氏之爲譜而以爲我東諸譜之冠何哉朴之始祖忠烈公忠義名節卓越諸家而其子孫在麗朝爲三世侍中功滿一國在本朝遇乙旨之變則有全家棄官之遜者遇龍蛇之難則有修聖廟之燹者有奉聖廟之神版者其餘或高蹈林樊泥塗冠冕或躬行孝弟矜式鄉黨或經術文章教導後進世所稱高人清士者比比焉此豈非忠烈公遺芬賡澤至屢千年而不泯者乎或曰朴氏之世德如此而在本朝屢世不能大振可惜也余以爲不然若使朴氏世爲華臚之職以享富貴安知其能世守清操苦節以符忠烈公之德耶且其五百年積累不食安知不後爲幾千萬年無窮之福耶余以是爲我東諸家之譜當以寧海之朴爲冠也

歲丁卯至月下澣

嘉善大夫前行

奎章閣副提學

東萊

鄭萬朝

序

영해박씨족보서

서계(書契) 중국 태고의 한자, 주문자가 만들어진 후로 성(姓)을 구별하고 씨(氏)를 주었던 법이 있어 제흥씨(帝鴻氏) 호의 이후로는 세서(世緒) 세대의 순서가 다 있었으니 그것이 족보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유래였다. 한(漢)의 사마천(司馬遷) 한(漢)의 무제(武帝) 때 사가(史家)이 쓴 계계표(帝系表)나 당(唐)의 고사렴(高士廉)①이 쓴 씨족고(氏族攷)가 다 바로 족보로서 선조들의 덕행 훈업(德行勲業)과 그 후손들이 뒤를 이어 현양(顯揚)했던 아

름다운을 기록하여 일대(一代)의 돈사(惇史)..돈후(惇厚)한 일을 삼지 않은 것이 없고 그것은 또 후인들
 에게 조상을 높이 고 일가를 사랑하여 모든 한 조상의 후손이라면 다 서로 친목해야 한다는 것을 알
 리고 싶어서였고 판적(版籍)..호이나 군부(軍簿)..군대 같이 그 성명 만을 기록해 놓자는 것이 아니니 그의
 의(意義)가 참으로 크다고 아니할 수 없겠다. 우리나라에서 중이 여기는 벌일(開闢)..나라에 공로가 많고 한
 사대부(士大夫)들이 집집마다 보첩(譜牒)이 있으나 후 선세에 훌륭한 조상이 계셨는데도 자손이 뒤를 계
 승하지 못하면 족보가 없게 되고 또 혹은 후세에 특출한 자손이 있어도 조상에 문헌(文獻)이 없으면
 족보를 할 수가 없는 것이니 사람 집에 족보가 있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가?

내가 영해박씨의 족보 한 것을 보고 우리나라 족보 중에서 으뜸이라고 생각하였다. 왜냐? 박씨의

시조 충렬공의 충의와 명절(名節)이 어느 집 보다도 탁월한데다 그 자손이 고려조에 있어서는 삼세 시

중(三世侍中)이 되어 공이 일국에 가득하였고 본조(本朝)..이씨에 있어서는 을해(一四五)년 병란 때는 온

집안이 벼슬을 버리고 세상에 숨은이가 있었고 임진년 왜란 때는 불탄 성묘(聖廟)를 새로 지은이

도 있었고 성묘의 신판(神版)을 모신지도 있었으며 그 밖에도 혹은 임변(林堧)..산에 숨어 관면(冠冕)

..벼슬을 내버린 이가 있고 혹은 효도하고 우애하여 고을에 모범이 된지도 있었고 혹은 경술(經術)과 문

장으로 후진(後進)..후배들을 교도한지도 있어서 세상이 말하는 고인청사(高人淸士)들이 줄줄이 있었으니 그

것이 어찌 충렬공의 남기신 향기 풍후한 은혜이 수천년이 되도록 없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겠는가?

혹자는 말하기를 『박씨의 세덕(世德)이 그러한데도 본조에 와서는 여러 대를 크게 떨치지 못했으니

애석한 일이다』 하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만약 박씨들이 대대로 화무(華旆)..화한 관직을 가

지고 부귀를 누렸더라면 대대로 청조고절(淸操苦節)②을 지켜서 충렬공의 덕에 부합(符合)하지 못했을 줄

어떻게 알 것인가? 또 오백년 동안 누리지 못한 부귀가 이후 몇 천만년을 두고 끝없는 복을 누리는

길이 될 줄 어떻게 알 것인가? 나는 그래서 우리나라 여러 집 족보중에 영해박씨 족보를 으뜸

으로 삼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정묘년 十一月

가선대부전행 규장각부제학 동래 정 만조③ 기록함

① 〓고사렴〓(高士廉) 당나라때 학자며 정치가, 이름은 검(儉), 우복야(右僕射)까지 지냈음.

② 〓청조고절〓(淸操苦節) 맑은 정조와 곤란과 고통을 겪으면서도 마음을 변하지 않고 굳굳하게 지켜나가는 절개

③ 〓정만조〓(鄭萬朝) 一八五八—一八九三 서울 출신으로 동래인, 一八九四年 궁내부 참의관이 되었다가 一八九六年 무고(誣告)를 받고 진도(珍島)에 유배되었고 十二年만에 사면되어 규장각 부제학이 되었다, 一九二九年 경학원 대제학이 되어 명륜학원 총재를 겸임하다.

寧海朴氏世系

一 始祖王 世二 南解王 世三 儒理王 世四 婆娑王 世五 祇摩王 世六 文昌王 世七 葛文王 世八 勿品 世
 姓朴諱赫居諱愍王諱治理王諱儉王諱伊非又諱諱大善又諱諱天寶
 世二 奈女昔脫解王老王 世五 逸聖王 世六 阿達羅王碧 世七 芳武 世八 英判 世九 得光 世十 欽

或

赤

貫

武

德

秀

光

炯

芳

武

英

判

得

光

欽

一 堤上 世二 文良 世三 登欣 世四 義珏 世五 曇 世六 紐 世七 龍文 世八 京漢 世九 仁範 世一〇 裕 世一一 秀奉 世一二 季業 世一三 麟
 封寧海君 封大寧君 寧海朴氏號百結 始宗

光欽 美一 乃物 相建 仁燁 啓輔 明信 貞環 露兼 楠善 潤長 應燦 德興

麟 文鉉 致宗 扈邕 術洪 濱 楣 光廉 暹 度德 連壽 塾 琦璜

瑣										琦		瑄	
										命天 中祖禮原 君 滌 籍江陵		元桂 三八世 13	二六世 1
										論		東生 寶生 三九世 14	二七世 2
緯										達儒		經 四〇世 15	二八世 3
宗仁										宣		孟純 四一世 16	二九世 4
張儉										太古		貴胤 四二世 17	三〇世 5
子青										用才		億壽 四三世 18	三一世 6
質										懷義		源 四四世 19	三二世 7
成樹										松庇		文興 四五世 20	三三世 8
亨根										巖說		得祥 得瑞 四六世 21	三四世 9
簡										得珠		俊民 俊達 俊英 俊叔 四七世 22	三五世 10
大春										文圭		山齊 山叟 山兼 山老 山斗 山皓 四八世 23	三六世 11
致玠										瑄		東舉 東彬 東茂 乃健 乃弘 舜舉 舜駿 舜相 舜弼 致學 致文 致明 致玠 四九世 24	三七世 12